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경제의 2015년 회고 및 2016년 전망

I. SSA 경제전망 개관	1
II. IMF 분류에 따른 SSA 경제의 2015년 추정과 2016년 전망	4
III. SSA 국가들의 최근 외국인투자 여건 및 국가경쟁력 평가	9
IV. 시사점	13

확인 : 팀장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작성 : 조사역 임민교 (6255-5727)
@koreaexim.go.kr

I. SSA¹⁾ 경제전망 개관

□ 세계경기 침체 지속, SSA 국가들의 고도 경제성장에 적신호

- SSA 국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4.1%의 성장에 그친 2009년을 제외하면 2004~11년 중 연평균 6~7%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SSA 국가들의 고도 경제성장에는 사업환경 및 미시경제환경 개선, 높은 원자재 수출가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금융조건과 외국인투자 유입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표 1> SSA의 전체 평균 성장률 추이 (2004~11년)

단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성장률	6.7	6.8	6.8	7.6	6.0	4.1	6.6	5.0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5.

- 그러나 이후 세계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원유, 천연가스, 주요 광물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세를 거듭함에 따라, 이들 원자재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SSA 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자본유출과 원자재 가격 및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재정·경상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이 내년도 SSA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15년 SSA 경제성장률은 전체 평균 3.8%로 추정, 2016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으로 일부 개선 전망

- 2014년 이후 지속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감소로 인해 2015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4.3%로 개선될 전망이다.

1) Sub-Saharan Africa(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약자. 통상 사하라 사막 이북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인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통칭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을 지칭하나, 분류에 따라서는 모리타니, 수단, 지부티도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간주하여 제외함. 본고에서는 IMF의 지역분류 기준에 따라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수단, 모리타니, 지부티를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SSA로 분류하였음.

<표 2> SSA의 전체 평균 성장률 추이 (2012~16년)

단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제성장률	4.3	5.2	5.0	3.8	4.3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표 3> SSA의 대 중국 수출액 추이 (2011~15.6월)

단위: 백만불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6
수출액	89,575	105,397	110,663	109,456	26,270

자료: 무역협회.

□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지속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테러와 내전 등 역내 정세불안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까지 평균 8~9%대를 기록하였으나, 경제성장률 하락과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2013년 이후 6%대를 유지함.
-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화폐가치 하락과 함께 전력 부족 심화에 따른 전기료 상승, 연료 보조금 폐지 등이 물가상승세를 가속화하며 7.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표 4> SSA의 전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012~16년)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소비자물가상승률	9.4	6.6	6.4	6.9	7.3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 재정수지는 적지 기조 유지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4.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국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비중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펼쳐 동 비중은 3.6%로 하락할 전망이다.
- 대부분의 SSA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연료,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음.

<표5> SSA의 전체 평균 재정수지/GDP 추이 (2012~16년)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재정수지/GDP	-1.8	-3.1	-3.5	-4.3	-3.6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증가 전망

-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1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 등으로 적자 기조를 지속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2015년 -5.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GDP 대비 5.5%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특히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상수지 적자 외에도 재정수지 악화, 환율상승 압박, 외환보유액 축소 등 다양한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표 6> SSA의 전체 평균 경상수지/GDP 추이 (2012~16년)

단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상수지/GDP	-1.9	-2.4	-4.1	-5.7	-5.5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융안정성 저하 전망

- 최근의 0.25bp 인상을 포함하여 2016년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순유입액 감소 및 외환보유액 감소가 예상되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 역시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전망이다.
- 2014년 10월 이후 잠비아와 앙골라의 통화 가치는 각각 40%와 26% 하락하였으며, 일부 SSA 국가를 제외하고 5% 이상의 통화 가치 하락을 보임.
- 최근 IMF에 따르면, SSA 국가들의 금융기관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채권(NPL) 비중이 증가하는 등 원자재 가격하락과 함께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표 7> SSA 전체의 평균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 (2012~16년)

단위: 월,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외환보유액/ 월평균 수입액	5.2	5.0	5.4	4.8	4.2
GDP 대비 외채 비중	5.9	7.1	7.7	10.2	10.4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II. IMF 분류에 따른 SSA 경제의 2015년 추정과 2016년 전망

□ 경제적 특성에 따른 그룹별 경제성장세의 차별화

- IMF는 Regional Economic Outlook(October 2015)에서 SSA 45개국을 원유의 수출입 여부를 기준으로 원유수출국과 원유수입국의 2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원유수입국은 다시 중간소득국, 저소득국, 취약국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함.
 - 원유수출국(oil-exporting countries, 8개국) : 앙골라,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남수단
 - 중간소득국(middle-income countries, 12개국) :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가나, 케냐, 레소토,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네갈, 세이셸, 남아공, 스와질랜드, 잠비아
 -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10개국) : 베냉,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 취약국(fragile countries, 15개국) :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리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상토메프린시페, 토고, 짐바브웨
- SSA 지역의 201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5.0%)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룹별 경제성장세가 차별화됨.
 - 특히 저유가 지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원유수출국은 평균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며, SSA 제1의 경제대국이자 최근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나이지리아(4.0% 성장)를 제외할 경우 그 수치는 평균 2.5%에 불과함.

- 중소득국은 원유수출국보다도 더 낮은 평균 2.6%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SSA 제2의 경제대국이자 최근 수년간 파업 빈발과 광물 수출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남아공(1.4% 성장)을 제외할 경우 그 수치는 평균 4.6%로 상승함.
 - 반면 저소득국은 평균 6.2%, 취약국은 평균 5.2%로 여전히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나, 역시 전년에 비해 (저소득국은 7.4%, 취약국은 5.8%)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IMF는 2016년 역시 그룹별로 경제성장세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일부 회복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인한 2009년의 4.1%와 유사한 수준에 불과함.

□ 원유수출국

- SSA 지역은 2014년의 경우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7%를 차지한 반면 전 세계 원유소비량에서는 3%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 10년 간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 일일 원유소비량 : 198.2만 배럴(2004년) → 259.2만 배럴(2014년)
- 국제 원유가격은 중국의 경기둔화, 경제제재 해제 개시에 따른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 등의 요인에 따른 초과공급 누적으로 2016년에도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원유는 신규 유정의 개발, 탐사 및 채굴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은 추정 매장량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요 에너지 자원의 지위를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임.

<표 8> 세계 원유시장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생 산 량	89.6	90.2	92.4	94.1	94.7
(O P E C)	31.2	30.2	30.1	30.6	31.4
(비 O P E C)	58.4	59.9	62.3	63.5	63.3
수 요 량	89.0	90.4	91.3	92.9	94.1

자료: OPEC.

- 원유수출국은 경제성장률이 국제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향세 지속으로 인해 전년(5.9%) 대비 2.3% 포인트 하락한 전체 평균 3.6%의 경제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국제유가 하향세의 지속이 예상되는 중에도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이 4.2%로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 원유수출국의 비석유 부문 전체 평균 성장률은 2013년 8.3%에서 2014년 6.7%, 2015년 4.4%로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2016년에는 4.7%로 다소 상승하며 계속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의 국가별 비석유 부문 성장률은 나이지리아 5.1%, 카메룬 5.5%, 가봉 6.1% 등으로 국가별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0.1~1.2%포인트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표 9> 원유수출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정치

단위: %, 개월

국가명	GDP성장률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환보유액 (수입개월 수)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앙골라	3.5	3.5	-7.6	-5.6	-3.5	-1.4	10.3	14.2	6.7	5.6
카메룬	5.3	5.4	-5.0	-5.2	-5.1	-5.6	2.0	2.1	4.1	3.7
차드	6.9	4.2	-10.4	-9.3	-1.1	-0.9	4.3	3.1	2.3	1.9
콩고공화국	1.0	6.5	-15.2	-14.6	-9.4	-2.6	0.9	1.7	6.5	4.8
적도기니	-10.2	-0.8	-8.7	-3.1	-5.9	-3.2	3.5	2.9	4.7	4.4
가봉	3.5	4.9	-7.0	-4.2	-3.6	-2.5	0.6	2.5	4.7	4.5
나이지리아	4.0	4.3	-2.1	-1.4	-3.9	-3.2	9.1	9.7	5.4	4.4
남수단	-5.3	0.7	-4.8	-3.6	-24.5	-23.7	41.1	14.4	1.0	0.6
원유수출국 전체	2.6	3.8	-3.4	-2.5	-4.3	-3.4	8.7	9.3	5.4	4.4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 원유수입국

- 원유수입국은 2015년 전체 평균 4.0%에 이어 2016년에는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부담의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전체 평균 4.4%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1) 중간소득국

- 광업 부문의 수출은 중간소득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남아공(금, 백금, 다이아몬드), 잠비아(구리), 보츠와나(다이아몬드)는 광물 수출이 총수출의 20~80%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연료수입 부담 감소는 광업생산 감소와 광물의 국제가격 하락,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 등으로 상쇄되었으며, 원유와 광물의 국제가격 동조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 중간소득국의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에 이어 2016년에도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남아공과 스와질랜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경제성장률에 그칠 전망이다.

<표 10> 중간소득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정치

단위: %, 개월

국가명	GDP성장률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환보유액 (수입개월 수)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보츠와나	2.6	3.2	2.8	0.1	-0.5	0.4	4.0	4.4	14.2	14.2
카보베르데	3.5	3.7	-9.7	-6.6	-4.1	-3.5	1.0	2.5	4.6	4.6
가나	3.5	5.7	-8.3	-7.2	-5.9	-4.3	15.3	10.1	3.6	4.1
케냐	6.5	6.8	-9.6	-9.2	-8.1	-7.3	6.3	5.9	4.0	4.0
레소토	2.6	2.9	-6.3	-13.9	-3.2	-10.4	3.9	4.1	8.1	7.5
모리셔스	3.2	3.8	-4.8	-4.8	-5.0	-3.9	2.0	3.0	6.0	6.0
나미비아	4.8	5.0	-12.1	-16.3	-5.9	-7.4	4.8	6.0	1.6	1.5
세네갈	5.1	5.9	-6.1	-5.2	-4.7	-4.2	0.6	2.1	4.6	4.4
세이셸	3.5	3.7	-15.2	-14.7	1.1	2.5	4.3	2.9	4.3	4.2
남아공	1.4	1.3	-4.3	-4.5	-4.1	-3.7	4.8	5.9	5.7	5.5
스와질랜드	1.9	0.7	1.1	-2.8	-4.4	-6.7	5.2	5.7	3.9	3.1
잠비아	4.3	4.0	-1.4	-2.6	-7.8	-6.5	7.3	7.5	3.5	3.1
중간소득국 전체	2.6	2.9	-5.2	-5.5	-4.9	-4.4	5.9	6.1	5.3	5.1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2) 저소득국 및 취약국

- 저소득국과 취약국 모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저소득국과 취약국의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2015년 6.2% 및 5.2%, 2016년 6.8% 및 5.9%로 전망되며, 석유수출국 또는 원자재 수출국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11> 저소득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정치

단위: %, 개월

국가명	GDP성장률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환보유액 (수입개월 수)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베냉	5.5	5.3	-9.3	-9.1	-2.6	-3.5	0.5	2.3	3.1	2.2
부르키나파소	5.0	6.0	-7.9	-7.8	-2.5	-3.0	0.7	1.8	2.2	1.8
에티오피아	8.7	8.1	-12.5	-9.3	-2.8	-2.8	10.0	9.0	2.0	1.6
말리	5.0	5.0	-3.3	-4.2	-3.2	-4.0	2.4	3.6	2.7	2.6
모잠비크	7.0	8.2	-41.0	-45.3	-6.5	-5.1	4.0	5.6	2.6	2.6
니제르	4.3	5.4	-19.1	-23.4	-8.0	-5.3	1.3	2.1	3.5	3.0
르완다	6.5	7.0	-10.6	-9.6	-3.2	-3.1	2.1	4.2	3.9	4.4
시에라리온	-23.9	-0.7	-11.4	-14.5	-4.0	-5.2	10.2	12.7	3.2	3.1
탄자니아	6.9	7.0	-8.2	-7.1	-4.0	-3.9	5.6	5.9	4.3	4.4
우간다	5.2	5.5	-10.5	-11.3	-3.6	-4.2	5.7	6.5	3.9	3.7
저소득국 전체	6.2	6.8	-12.9	-12.5	-3.7	-3.7	5.9	6.3	3.1	2.8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표 12> 취약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정치

단위: %, 개월

국가명	GDP성장률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환보유액 (수입개월 수)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부룬디	-7.2	5.2	-11.3	-9.7	-6.0	-4.8	7.4	6.2	2.7	3.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5	5.7	-11.8	-11.2	-4.9	-3.4	5.7	4.9	4.9	4.9
코모로	1.0	2.2	-15.7	-17.0	0.6	-2.5	2.0	2.2	5.7	5.5
콩고민주공화국	8.4	7.3	-7.6	-8.0	1.9	1.2	1.0	1.7	1.2	1.0
코트디부아르	8.2	7.6	-1.0	-1.9	-3.2	-3.2	1.6	1.5	2.6	2.8
에리트리아	0.2	2.2	-2.2	-3.0	-14.5	-14.4	12.3	12.3	3.1	1.9
감비아	4.7	5.5	-13.5	-10.2	-6.3	-3.0	6.5	5.3	2.7	3.7
기니	0.0	4.9	-16.7	-36.8	-6.7	-3.3	9.0	8.7	1.9	1.6
기니비소	4.7	4.8	-3.5	-4.6	-0.9	-2.3	1.3	2.3	11.9	13.7
라이베리아	0.9	5.6	-41.6	-37.1	-10.2	-6.9	7.9	8.2	2.5	2.8
마다가스카르	3.4	4.6	-1.3	-2.2	-4.4	-2.8	7.6	7.4	2.5	2.6
말라위	4.0	5.0	-2.6	-2.5	-6.4	-3.2	20.1	14.0	2.1	3.3
상토메프린시페	5.0	5.2	-12.4	-15.2	-8.8	-2.3	5.8	4.6	3.5	3.8
토고	5.4	5.6	-12.2	-11.5	-6.3	-6.0	1.9	2.1	2.2	2.2
짐바브웨	1.4	2.4	-22.9	-21.8	-1.3	-0.5	-1.6	0.0	0.6	0.6
취약국 전체	5.2	5.9	-8.1	-9.3	-2.5	-2.0	4.2	4.0	2.0	2.0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15.

3. SSA 국가들의 최근 외국인투자 여건 및 국가경쟁력 평가²⁾

□ IBRD와 IFC의 외국인 투자여건 평가

- IBRD와 IFC(국제금융공사)는 매년 'Doing Business'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운영 관련 주요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180개국 이상을 평가하고 있음.
 - 10개 분야는 창업, 건설허가 취득, 전력 공급, 자산 등록, 금융 서비스, 투자자 보호, 납세, 무역규제, 계약 이행, 파산 해결임. 평가방법은 분야별로 필요한 법적절차의 단계 수, 각 단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함.
- SSA 국가들의 경우 2016년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상위 50% 내 (총 189개국 중 94위 이상)에 속하는 4개국은 3개 중간소득국(모리셔스, 남아공, 보츠와나)과 1개 저소득국(르완다)으로 집계됨.
 - 원유수출국은 사업 허가, 투자자 보호, 계약 실행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중간소득국은 물론 저소득국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³⁾ 이는 원유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원유수출국 중 외국인 투자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인 가봉(162위)은 중간소득국 최하위인 세네갈보다도 낮은 순위이며, 차드는 183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중간소득국 중 외국인 투자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모리셔스(32위, 아프리카 대륙 전체 1위)이며, 세네갈은 최하위(15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저소득국·취약국 중 외국인 투자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르완다(62위)이며, 에리트리아는 최하위(189위, 전체 평가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2) IBRD와 IFC의 'Doing Business 2016'를 주로 참고함.

3) 북아프리카의 경우도 종합순위에서 원유수출국인 알제리(163위)가 원유수입국인 튀니지(74위), 모로코(75위), 이집트(131위)보다 더 낮음.

<표 13> SSA 국가별 'Doing Business 2016' 순위

1. 원유수출국

국가명	종합 순위	항목별 순위			
		창업	건설허가취득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가봉	162	144	164	155	171
나이지리아	169	139	175	20	143
카메룬	172	137	159	134	159
콩고공화국	176	177	120	150	158
적도기니	180	187	157	144	108
앙골라	181	141	108	66	185
차드	183	185	133	155	156

2. 중간소득국

국가명	종합 순위	항목별 순위			
		창업	건설허가취득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모리셔스	32	37	35	29	27
보츠와나	72	143	97	81	128
남아공	73	120	90	14	119
세이셸	95	131	123	105	138
잠비아	97	78	110	88	134
나미비아	101	164	66	66	103
스와질랜드	105	156	80	134	175
케냐	108	151	149	115	102
가나	114	102	132	66	116
레소토	114	112	172	99	85
카보베르데	126	75	104	163	47
세네갈	153	85	148	155	145

3. 저소득국

국가명	종합 순위	항목별 순위			
		창업	건설허가취득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르완다	62	111	37	88	127
우간다	122	168	161	99	78
모잠비크	133	1524	31	99	184
탄자니아	139	129	126	122	64
말리	143	172	152	166	149
부르키나파소	143	78	76	144	163
에티오피아	146	176	73	166	84
시에라리온	147	99	142	88	105
베냉	158	115	82	150	168
니제르	160	134	178	166	154

4. 취약국

국가명	종합 순위	항목별 순위			
		창업	건설허가취득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말라위	141	161	65	115	147
코트디부아르	142	46	180	155	120
토고	150	133	179	155	125
감비아	151	169	117	163	110
부룬디	152	19	165	115	146
코모로	154	163	116	144	179
짐바브웨	155	182	184	81	166
마다가스카르	164	128	182	105	153
기니	165	126	166	166	118
상토메프린시페	166	31	121	185	182
라이베리아	179	37	174	182	176
기니비소	178	179	163	155	162
콩고민주공화국	184	89	131	174	16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85	/189	155	150	177
에리트리아	189	184	189	122	121

자료: IBRD, IFC, Doing Business 2016.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 WEF는 해마다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⁴⁾를 통해 경제성장과 미시경제의 5개 분야를 대상으로 140여개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함.
- 2015/16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순위에서 SSA 국가들 중 상위 50% 내(총 144개국 중 72위 이상)에 속하는 4개국은 3개 중간소득국(모리셔스, 남아공, 보츠와나), 1개 저소득국(르완다)으로 집계됨.
 - 중간소득국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모리셔스(46위, 아프리카 대륙 전체 1위)이고, 저소득국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르완다(58위)이며, 취약국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코트디부아르(91위)로 나타났음.
 - 한편 원유수출국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가봉(103위)이며, 차드는 139위를 기록하고 있어 SSA 국가들의 경우 석유자원의 보유 여부가 해당 국가의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보임.⁵⁾

4) 스위스 다보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F가 1996년부터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국가경쟁력을 성장경쟁력지수(GCI)와 미시경제경쟁력지수(MICI)의 2개 지수로 구분해 평가함. 언론에 주로 보고되는 GCI의 8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대한 해당국의 개방성; ②정부예산과 규제역할; ③금융시장의 발전; ④사회간접시설의 질; ⑤기술의 질; ⑥기업 경영의 질; ⑦노동시장의 유연성; ⑧사법 및 정치 기구의 질.

5) 북아프리카의 경우도 종합순위에서 원유수출국인 알제리(87위)는 원유수입국 중 이집트(116위)만을 앞서고, 다른 원유수입국인 모로코(72위)와 튀니지(92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

<표 14> SSA 국가들의 2015년 WEF 세계경쟁력 순위
(전 세계 총 144개국 중)

순위	국가	전년도 순위	순위등락	인프라
46	모리셔스	39	↓7	37
49	남아공	56	↑7	68
58	르완다	62	↑4	97
71	보츠와나	74	↑3	96
85	나미비아	88	↑3	66
91	코트디부아르	115	↑24	85
96	잠비아	96	-	120
97	세이셸	92	↓5	47
99	케냐	90	↑9	99
103	가봉	106	↑3	110
109	에티오피아	118	↑9	121
110	세네갈	112	↑2	109
112	카보베르데	114	-	94
113	레소토	107	↓6	113
114	카메룬	116	↑2	125
115	우간다	122	↑7	128
119	가나	111	↓8	115
120	탄자니아	121	↑1	127
122	베냉	-	-	130
123	감비아	125	↑2	95
124	나이지리아	127	↑3	133
125	짐바브웨	124	↓1	129
127	말리	128	↑1	106
128	스와질랜드	123	↓5	104
129	라이베리아	-	-	122
130	마다가스카르	130	-	138
133	모잠비크	133	-	126
135	말라위	132	↓3	135
136	부룬디	139	↑3	136
137	시에라리온	138	↑1	132
139	차드	143	↑4	140
140	기니	144	↑4	139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 - 2016, World Economic Forum.

4. 시사점

□ SSA 국가의 산업다각화 필요성 고조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최종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와 외채부담을 증가시키며 신용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음.
-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원자재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과 원유수출이 국가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산업분야로의 다각화와 함께 정책 및 제도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

□ 인프라 부문 투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다각화와 함께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제조업의 대 SSA 직접투자가 고려 가능하나, 전력, 수도, 운송 등 기본 인프라 미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SSA 국가들에 진출이 부진했던 우리 건설기업들도 신시장 개척을 위해 동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개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인프라 투자가 중시되고 있어, 이 분야에 공기업을 위시한 전문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롭게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있어 천연가스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진출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

- 우리 기업의 대 SSA 지역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동 지역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SSA 국가들 중 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10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그친 상태임.
- 따라서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관계 증진이 기대되는 SSA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15> 우리나라와 SSA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국가명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일	발효일	체결일	발효일
가 봉	2010년 10월 25일	2015년 12월 02일	2007년 08월 10일	2009년 08월 09일
나 이 지 리 아	2006년 11월 06일	2015년 03월 21일	1998년 03월 27일	1999년 02월 01일
남 아 공	1995년 07월 07일	1996년 01월 07일	1995년 07월 07일	1997년 06월 06일
르 완 다	-	-	2009년 05월 29일	2013년 02월 16일
모 리 타 니 아	-	-	2004년 12월 15일	2006년 07월 21일
모 리 셔 스	-	-	2007년 06월 18일	2008년 03월 07일
부 르 키 나 파 소	-	-	2004년 10월 26일	2010년 04월 14일
세 네 갈	-	-	1984년 07월 12일	1985년 09월 02일
콩 고 공 화 국	-	-	2006년 11월 08일	2011년 08월 13일
튀 니 지	1988년 09월 27일	1989년 11월 25일	1975년 05월 23일	1975년 11월 28일